

제목	[존재론반] 인간너머의 세계(more-than-human world)를 향한 문화연구는 가능할까?		
개요	<p>#1.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너도나도 마스크를 쓰고, 핸드폰엔 미세먼지 어플을 깔고 시시각각의 추이를 살핀다. 주변을 둘러보면 별다른 줄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들이 배치되어 있다.</p> <p>#2.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갑자기 소시지들이 낫설어졌다. 공항입국장에서선 육가공품은 모두 금지 물품이 되었다.</p> <p>#3.한강에 나갔더니 저마다 강아지와 산책중이다. 심지어 커피들도 강아지와 함께다. 반려견, 반려식물, 반려곤충.. 이제 나는 누구와 살고 있다. 누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p> <p>우리의 일상에는 실상 수많은 -인간 아닌 존재들-이 존재한다. 반려동물처럼 나의 품안에서, 때론 미세먼지나 돼지고기처럼 내 콧구멍과 입구 명 앞까지 이들은 밀려들어오고, 우리는 매순간 이들과의 공존의 범위, 방식 등을 감각/고민/갈등하고 반응/결정/실천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인간이 아닌 이들 존재들과 우리의 관계, 존재방식에 대해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들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비인간),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이 너무 강력히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는 이 인간 아닌 존재들에 대한 인류학, 지리학 영역에서 개진되고 있는 최근 연구들을 개괄하며 인간너머의 세계를 조금은 가능/조망하고,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문제를 문화연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p>		
이름이	옥미애, 임동현		
주차별 내용			
	내용	텍스트	Additional
1주차	인간이 아닌 것들, 존재들을 가시화하기	이동연(2017) 문화연구의 종말과 생성 2부, 문화연구의 이론지평. 문화과학사 최명애 (2018). 한국 인문지리학의 ‘동물 전환’을 위하여: 영미 동물지리학의 발전과 주요 쟁점. <공간과 사회>, 63권, 16-54. 이강원. 2013. 과학기술인류학과 자연의 정치: 문화상대주의와 총체성을 넘어서.	
2주차	포스트휴먼이라는 상상	로지 브라이도티. 2015. <포스트휴먼>	
3주차	존재론적 전환: 탈구조적 인류학, 존재론적 인류학	하대청, 이강원, 임소연 (2015). 재현적 증거에서 존재론적 증거로. 비교문화연구, 21(1),133-171 김태우. 2018. 치유로서의 인간-식물 관계: 존재론적 인류학으로 다시 읽는 동아시아의학 본초론. 에두아르도 비베이루스 지 까스뜨루(2018) 식인의 형이상학: 탈구조적 인류학의 흐름들.후마니타스	
4주차	도시에는 길고양이와, 비둘기들이 존재한다	전의령(2017). “길냥이를 부탁해”: 포스트휴먼 공동체의 생정치. <한국문화인류학>. 50권 3호, 3-40. 김준수(2018)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자연’ 관계의 재조정 : 감응의 통치를 통해 바라본 도시 비둘기.<공간과 사회> 63권, 55-100	
5주차	문화연구와 인간너머의 세계는 어떻게 만나야할까	에두아르도 콘(2018) 숲은생각한다. 사월의 책 1~2장 *문화연구는, 비인간, 인간너머의 세계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텍스트 리스트			
<p>김준수(2018)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국가-자연’ 관계의 재조정 : 감응의 통치를 통해 바라본 도시 비둘기.<공간과 사회> 63권, 55-100 김태우. 2018. 치유로서의 인간-식물 관계: 존재론적 인류학으로 다시 읽는 동아시아의학 본초론.</p> <p>로지 브라이도티. 2015. <포스트휴먼> 메릴린 스트래선. 2019(출판예정). <부분적인 연결> 서문, I-1, I-2. 에두아르도 비베이루스 지 까스뜨루(2018) 식인의 형이상학: 탈구조적 인류학의 흐름들 에두아르도 콘(2018) 숲은생각한다. 사월의 책 이강원. 2013. 과학기술인류학과 자연의 정치: 문화상대주의와 총체성을 넘어서. 이강원. 2018 <재난과 삶: 대지진에 대비하는 일본 방재과학의 집합실험> 1-3장 이동연(2017) 문화연구의 종말과 생성 2부, 문화연구의 이론지평. 문화과학사 전의령(2017). “길냥이를 부탁해”: 포스트휴먼 공동체의 생정치. <한국문화인류학>. 50권 3호, 3-40. 최명애 (2018). 한국 인문지리학의 ‘동물 전환’을 위하여: 영미 동물지리학의 발전과 주요 쟁점. <공간과 사회>, 63권, 16-54. 하대청, 이강원, 임소연 (2015). 재현적 증거에서 존재론적 증거로. 비교문화연구, 21(1),133-171 Jagose, A. (2019). Anthropomorphism, Normativity, and the Couple: A Queer Studies/Human-Animal Studies Mash-Up.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25(2), 315-335. Duke University Press. Retrieved June 11, 2019, from Project MUSE database.</p>			